

연중제 13주일
(교황주일)

기도서 P. 379 C해

해 그1독(열왕전 19,16b,19-21절)
2독(갈라4,31b-5,1.13-18절)
복음(루 가 9,51-62절)

숨정이

발행인	법	식	규
인쇄인	정	승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1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강론□

어디든지
따라 가겠습니다

공 아 영 신부

우리들이 거의 매일 보고 느낄 수 있는 한가지 사실은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수록 이에 비례해서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병이나 가난이나 죽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어떤 때는 자신을 조금도 생각치 않고 큰 희생을 바칩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완전한 사랑을 바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하느님으로부터 자기 외아들 이사악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철저한 요구를 받았고 또 하느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땅으로 떠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엘리야 예언자는 하느님께 영감을 받아 자기 뒤를 따르라고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번 제자들의 동의를 구했지만 제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았습시다. 또 오늘 복음에서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서슴지 않고 즉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시간이나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조차 주시지 않습니다.

이같이 예수께서는 그 지방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잘아 시면서도 당신의 생활이 아주 어렵다고 몇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읍니다."

예수께서는 최면술사나 협잡꾼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절절하게 하거나 사람들의 원의에 따라 가르침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이 곧 바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시고 무슨 일을 이해타산적으로 응답을 연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크리스찬 생활에서 응답하기를 미루는 것은 거절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로 부르실 때 오래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한번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루속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뒤를 돌아다 보지말라고 분부하십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과거에 포기했던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사람은 아름다운 경치를 본 후에 가야할 앞길을 생각치않고 자꾸 그 경치를 되돌아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크리스찬은 과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장차 다가올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결론으로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서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기묘한 경치를 보여주려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하는 힘찬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송동 전주교회 주임신부)



우리의 선언

우리 대전신학대학 동문 사제들은 한 자리에 모여 오늘의 현실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예언자적 사명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유신헌법과 일련의 긴급조치들이 발표된 이후 일이 있어도 가슴깊이 간직한 말을 하지 못하는 타의에 의한 병어리가 되어 있다. 자칫하면 구속이다, 투옥이다 하여 생명의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의 모든 국민이 하느님의 음성인 양심을 숙일 수 밖에 없다. 양심이 없는 죽은 몸에 좋은 옷, 좋은 집, 고속도로, 공업단지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탈세와 사치를 일삼는 일부 기업주들을 위한 정책으로 수 많은 근로자들이 저임금의 흑사로 생존마저도 위협받고 있으며 농민대중도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겠다.

우리나라 안의 문제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판나라 사람들이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알 권리가 하루속히 회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개인 구령적인 신심주의에서 탈피하여 공동체적 인간해방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일해야 할을 깊이 반성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다가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과함께 계속 정진하려는 마음의 지포로 삼는다.

1977. 6. 16

대전 신학대학 동문 사제 일동

숨정이 산책





콩나물을 먹고 사는 사람

—“발이 시려서 환부에 통증이 와!”—

문 규 현 신부

—77년 6월 8일 김해 교도소 방문. 교도소 정문에 콩나물독 몇개가 있었다. 분명히 예사 콩나물과는 달라 보인다. 가까이 가서 보니 떡잎이 두 개씩 피어있었다. 이런 콩나물도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몇개를 뽑아보니 30cm 자로는 어림도 없다. 역시 40cm였다. 이런 분명히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라 해야 옳을것 같았다. 여물이라 비유한다면 너무하다고 할런지…… 국 끓이진 마चा가지일지 모르겠다만 생각해 볼 문제다.

—수인 번호 8번, 5호 접견실에서 접견.
웃음으로 맞이하여 주셨다.

□ 0. 9평짜리 방은 모면하십니까?

■ 조금 넓은 곳으로 가진 갔다만, 창문은 모두 가리워져 있지. 통방(通房)할까봐 그렇지.

□ 전강은 어떠십니까?

■ 좋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혈양말을 넣어주면 좋겠어. 발이 시려서 환부에 통증이 오는것 같애. 그리고 요사이는 이가 아파서 걱정이야.

□ 의사 검진은 받아 보셨습니까?

■ 의사?

<헌행법에 의하면 이감되어 오면 건강진단을 해서 돌보게 되어있을 뿐 아니라 수시로 치료는 물론이려니와 필요하면 기절수에게는 자비부담으로라도 일반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에게는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기가 귀에다 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말해 봐야 입만 아플 일이다. 그래도 도의적으로 그럴 수가 있을까? 가슴 아프기만 하다.>

□ 독서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내가 다른 재소자들에게 미안한 것은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가톨릭 시보가 회람된 모양인데 지금은 되고 있지 않는 것이야.

<부산에서 수고해 주시는 수녀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심하다. 보안과장님 왈, “이곳에 박사되려 들어왔습니까? 지정된 도서만 넣어 주십시오.” 하루 30분 운동시간 외에는 방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으란 말이며, 신부가 표고버섯 채배법 같은 책만 보고 외우고 있으란 말인가?>

□ 밖에 계신 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밖에 계신 형제 자매들이 계속적으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오늘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회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소위 3·1사건으

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한 기도회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은 물론이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형제들 그리고 이미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양심의 수인(囚人)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더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정의평화를위한 기도회로 했읍니다.

■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예나 지금이나 나의 신념대로 살아갈 뿐이다. 이것 때문에 오는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지금의 나의 모든 것은 그동안의 나의 생활에서 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속으로, 오늘도 알게 모르게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하여 바치는 마음으로 산다. 우리를 위하여 염려와 기도해 주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다오.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다!

□ 편지는 더러 받으셨어요?

■ 편지? 발라바(중학교 1학년생인 조카)한테서만 한 통 받았지. 여기서도 편지는 쓰라고 하면서도 종이도 연필도 안주지.

<편지에 대해서 한마디 해두고 싶다. 숲정이에 주소를 발표해 주고, 편지를 내라고 권유해서 말썽이 생긴 것이다. 광주 대진신학교에 재학중인 전주교구 신학생들이 문 정현 신부께 편지를 낸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신학생들이 간단 간단히 안부라도 전해보자고 연명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보니 길어졌다. 26,7명의 편지가 한 통으로 봉합되어 6월 7일에 발송되었는데 6월 10일에 문교부에서 광주 신학교 당국에 연락이 있었다 한다. 비공식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6월 8일에 당국이 전주교구 신학생들의 명단을 파악해 갔다 한다. 그뒤로 별다른 일은 현재까지 없다 한다. 꼭 이태야 하는가?>

이 더위에 발이 시린다는 형님의 말씀을 듣고 발걸을 돌리는 동생의 마음이 편안할 수 만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다!”는 말씀에 힘을 얻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 정현 신부께 드리는 성금

□ 고산 본당에서 있었던 전주교구 제33차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참가자들 11,600원

□ 이리 창인동 본당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원 20,000원

□설계·감리·허가 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향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철수 (금구<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 3-1449

☆새로나왔다! 삼화온수 보일러 ☆

☆특징 —주물로 되어있으며 열탄가스에 강한
—열전 100% 효율, 99% A.L인코트
—국립공업 기능청 승인 242호

본사 직영 전북 총 판매점

부 활 상 회

대표 주 원 철(야고버)

□각 시군대리점 구함(각 가정에도 저렴한으로 직접 시공)

□전주시 전동 3가 26-17 (전화 ②2143)



正義와 平和 추구

— 苦難을 대전제로 敎회의 사명 실천 —

현실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양심대로 말한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敎회는 인권과 정치질서에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敎회 본래의 입장에 따라 정의와 평화를 위한 발언권을 계속 행사할 것을 다짐하며, 3·1사건 복역자와 시인 김지하 등 모든 양심의 수인(囚人)들을 위한 기도회가 서울 명동성당을 비롯 여러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3월 28일 명동 기도회에서, 인권문제가 인류공동의 현실적 책무가 되어 있는 지금,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국민총화가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3·1사건이 중형으로 매듭지어졌다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 성명은 자연법적 질서와 정의를 끝내 우리 사회의 현실적 제도로 정착시키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시인 김지하의 조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금년 3·1절 기도회에 참석하려던 전국 각지의 사제들을 연금, 연행 그밖의 방법으로 참석을 저지한 사실은 중대한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4월 18일 김수환 추기경, 윤공회 대주교(주교회의 의장)등 주교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명동성당에서 「77선언」(전문 93면)을 낭독하고 사회정의와 공법이 거부당할 때 소리높여 외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했다. 또한 참된 사회정의구현을 위해 보다 보람되이 죽고 살 것을 결의한 동 사제단은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인권을 지키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 심어야 할 敎회의 사명을 희생과 고난을 대전제로 실천한다. 복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법과 권력은 무조건 거부한다. 3·1 민주주국선언과 1.23원주선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참여한다. 언론, 학원, 종교의 자유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모든 선의의 정치범과 양심의 수인들은 무조건 석방해야 하며 고문과 정보정치는 종식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을 위한 생존권의 길을 보장하고 국내외적으로 선린관계의 자세확립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진정한 국민총화와 안보의 길은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크리스찬 신앙과 구원사상을 온 국민 안에 심는 것이기에 우리는 순교자적인 애국애족의 신념으로 임하고 있음을 재천명 한다. (경향잡지 77년 6월호 65페이지에서 전문을 옮김)

※ 편집자註...경향잡지 6월호가 일부 지방에서 회수되고 있다 한다. 어떤 교구는 전면적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우리 교구내의 일부 본당에도 당국의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위에 인용한 「정의와 평화 추구」와, 이미 본 교구보 순정이 77년 4월 24일자(231호) 2면에 <77 한국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는 77년 6월호 경향잡지 93페이지에 실려 있는 「소리높여 외치는 소망」이 문제되었다 한다.

요십이 (204) 김병호



□ 각종 농약, 비료, 비너루, 씨앗 □

원평 대일농약사

이영희 (다투)

☎ 원평 124번

원평 농업협동조합 앞

금·은·보석 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염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사진기계 · 사진재료 도산매 ◎

태 광 사

(구 태 양 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 많이 찾아 주세요 ◎

삼성전자 군산판매장

대표 심가타리나

군산시 중앙로 2가 89-1 ☎ 5000번

전주교회 — 우구

←역 — 군청 화신약국

↑ — 경찰서 →

신혼예식장 삼성전자

□ 다자수리, 취업알선, 매월집정 □

뉴-타자학원

원장 신승무(바오로)
전화 ⑥ 66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 조제약 전문 —

김을태(베드로)

☎ 육교열 중앙시장동

(전화 ③ 4577)

* 많이 찾아 주세요 *

군산梨花치과 의원

박안드레아(찬운)

☎ 8711 (천일약국2층)

천일약국 2층 조화당

전화국 국도극장



1. 오늘은 교황 주일, 현대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교황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 경향잡지 6월호 24~26페이지에 「교황의 하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 각 분당은 지난주에 발표된 주교님 메시지의 뜻을 특별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제양성 후원성금 감사합니다
□ 집제(사순절 성금 171,063원), □ 부주(후원기금 50,000원), □ 약사회(후원기금 100,000원)
4. 정양중이신 신부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5. 중·고등 연합회 회장단 회의(다음 주일 10시, 가톨릭 센터, 참가비...1인당 600원)
※ 각 분당 학생회 현황을 준비하여 보고하기 바랍니다(미사 있음)
6. 사제 서품(7월 5일<화> 11시, 중앙성당) 받을 세 부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순성(베드로-전동), 김 순태(요셉-고산), 김 준호(십자가 바오로-집제)
7. 교구 교리교사 연합회 제 2차 분당 순회 방문
7월 2일(토)...순창(2시), 여산(5시), 화산(2시).
3일(일)...삼례(11시), 임실(11시), 남원(2시 반), 황등(11시), 함열(2시 반), 용안(1시)
□ 방송안내-문화방송(MBC)...매일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 김윤섭 신부 방송
-서해방송(SBC)...매일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강덕창 신부 방송

(중앙)

전화 ③3651
3874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임원회: 공식미사 후, 강당
 2. 중·고학생회 체육대회: 26일 10시, 해성학교
 3. 성심 부녀회 월례회: 7월 1일<금> 어머니 미사 후
 4. 7월, 8월 환자 봉성제 중지합니다
 5. 미사 참례해 어린이들 조용하게 합시다
 6. 미사후 마당에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7. 내가 바친 교무금 잘 정리되어 가는지 확인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5,149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회원들과 뜻있는 분들 꼭 참석하세요
 2. 사도회원들과 각 활동단체 회원들과의 대화 위해 김주교님께서 오실 예정이오니 대상자들은 내일 오후 7시 반까지 나오세요
 3. 파티마 성모상 7월 한달동안 모시게 되었습니다
※ 성모님 환영...7월 1일<금> 오전 10시, 성모님께 세례평화와 분당 발전 위해 묵주기도 열심히 바칩시다
 4. 청년 레크레이션: 7월 1일, 8일 밤 8시, 대강당
- 지난주 봉헌금: 49,37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학생 신자 및 예비자 교리: 매주<토> 오후 6시
 2. 신공조합 이사회: 7월 5일 오후 8시
 3. 부녀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4. 신임 교리교사 유애라(아네스)님 수고하시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① 신축헌금...오복용(요한)-30만원
② 새 성당 비품...본당 주보성인(내동리 자모회 일동), 제대(박영규), 행렬용 옷대(최효순), 장엄예식용 옷대(박경애, 송테레사), 외부 성모상(이명) 총계 7,642,000원
- 지난주 봉헌금: 37,635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29일)
위 분당을 가지신 분들 합동미사 봉헌-오전 5시 반
 3. 북자 신공조합 이사회: 오늘 공식미사 후, 이사님들 꼭 나오세요
 4. 미납된 교무금 속히 완납을! (교무금 진입 및 납부 현황 게시판에...)
 5. 주소 변경, 전화신설 및 변경은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41,77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교황주일 임니다! 정성되어 기도, 헌금 바칩시다
2. 신허 월례회: 미사 후
3. 제 4 지구 체육대회: 해성학교 교정에서
4. 형제회: 12시, 이정빈(시몬)씨 맥
5. 교회 운영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중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월례회 ① 사도회: 7월 3일<일> 공식미사 후
② 애령회: 7월 3일 오전 9시
③ 누깁다 부녀회: 공식미사 후, 유치원
 2. 아동교리 및 미사(토, 오후 3시)에 귀염둥이를 꼭...
 3. 중·고생 체육대회: 오늘 해성학교 교정에서
- 지난주 봉헌금: 72,48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한철
보좌 신부 김윤섭
사도 회장 유석중

1. 예수 성심 봉헌미사: 27-30일, 미사 후 성체강복
 2. 30일 밤 파티마 성모상 마지막 성체강복
 3.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 반
 4. 동 반장회의: 오늘 저녁미사 후
 5. 마리아 빨리(7월 2-3일, 부산에서) 참가 희망자는 신청하세요
※ 전국 지도신부와 합창단 7월 16일 전통에 울 예정
 6. 주일학교 시범교리(6학년): 오늘 오후 3시
 7. 묵주기도 10만번 초과(105,898번)
성체수녀원-15,000원, 노송동 성당-8,650원
- 지난주 봉헌금: 129,390원

※ 새 성당 신축헌금: 성심교사-김규승(20만), 유경옥(15만), 전점순, 이덕우, 조지영, 이주자, 방준원(각 10만), 신광수(6만), 김공규, 정순수, 김낙안(각 5만), 주금동(4만), 황봉식, 한갑근(각 3만)/전동-김형숙(10만), 김승희(5만), 장요셉, 백복주(각 3만), 강재진(1만) / 교동-문정례, 박골롬바, 오금순(각 1만), 조광수(2만) / 동완산동-송아나다시아(반지 3돈), 조혜선(5만), 김대현(3만) / 서완산동-김광라(10만), 한로사리아, 이재마(각 5만) / 이세열, 오영길(각 3만), 안엘리사벳, 엄테레사, 고재마(각 2만), 손테레사, 김테레사, 김제노비아, 이아가다, 문요안나(각 15,000), 문유리안나, 조엘마(각 1만) / 풍남동-김복윤, 김창선(각 10만), 박마리아(3만), 이루시아(2만), 임기주(1만) / 남노송동-이수만, 서마리아(각 10만), 천비리시다(3만), 김요세피나, 김마리아(각 2만), 강테레사, 육애란, 오수산나, 은마리아, 김마누엘, 국마리아, 김안나, 김요안나(각 1만) / 중앙동-김보순(십자가, 반지 5돈), 김로사(5만, 반지 1돈), 조준복(1만) / 경원동...익명(5만) 김수산나(1만) / 기타-설계사 김철수(30만), 고베로니카(10만), 차모니카(백미 2가마), 김귀례, 김발렌티나, 김제시리아(각 1만) 주제 2,952,000원 금품 9돈 누계: 24,747,500원, 금품 108돈